

# Pat Metheny의 작품 'Bright Size Life'의 화성분석

김형준\*, 김대승\*  
 \*계명대학교 뮤직프로덕션과  
 e-mail:jazzia@hanmail.net

## A Study Harmony on 'Bright Size Life' of Pat Metheny

Hyeong-June Kim\*, Dae-Seung Kim\*  
 \*Music Production, KEIMUNG University

### 요 약

본 논문에서는 현재 Jazz에서 사용되어지는 화성기법을 Pat Metheny의 작품인 "Bright Size Life"를 통해서 알아보았다. D Major Scale이 선율에 주로 사용된 본 작품은 A 부분에서는 선율이 완전 5도의 음정으로 발전 되었고 B부분에서는 장7도의 음정을 이용하였다. 화성은 중간에 D Minor Scale의 Bb/A가 사용되어서 Modal InterChange기법도 나타나고 있다. B부분에서는 G/A, F/G의 Constant Structure가 나오고 있다.

### 1. 서론

현대의 Jazz는 작곡 기법에서도 다양한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그중 하나가 Modal Interchange로써 Jazz뿐만 아니라 가요와 Pop에 이르기까지 그 활용 범위는 상당히 넓다고 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Pat Metheny의 작품 중에서 'Bright Size Life'의 화성 분석을 통하여 이를 밝히려 한다. 또한 Inversion Chord의 사용과 Hybrid Chord의 사용도 알아보기로 한다.

### 2. Bright Size Life의 화성 분석

본 논문의 화성을 분석하기에 앞서 Song Form을 분석해보면 다음과 같다. A-A'-B-A''의 형식으로 전통적인 방식을 따르고 있다. 본 논문의 작품뿐만 아니라 많은 Jazz 작품들이 이 형식을 따르고 있다. A부분이 8마디의 주제부로 다시 A'로 반복하고 B부분이 8마디의 후렴구로 발전하며 A'' 마무리하는 방식이다. 2010년 추계 논문 발표에 게재한 'Question & Answer'도 A-A-B-A의 형식을 갖고 있었지만 Intro와 Outro가 존재하였고 A부분은

16마디 B부분은 8마디로 확장된 형식을 취하고 있었다.

[표 1] Question & Answer와 Bright Size Life의 Song Form 비교

형식	Intro	A	A'	B	A''	Outro
Question & Answer 마디수	8	16	16	8	15	8
Bright Size Life 마디수		8	8	8	8	

[악보 1] Bright Size Life의 Song Form

출처: Pat Metheny's Pat Metheny Song Book (Hal Leonard Corp 2000.6)

2-1. Bright Size Life의 A부분 선율 분석

악보 2]에서 보듯이 Bright Size Life는 4박의 못 갓춘마디로 시작한다. 그리고 완전 5도의 음정으로 선율이 발전함을 알 수 있다. 선율의 구성에 있어서 음정을 이용한 발전은 Pentatonic Scale과 더불어 Pat Metheny가 자주 사용하는 아이템이다. 본 논문의 저자의 다른 논문에서 자주 거론되는 부분이다. 두 번째 단의 첫째 마디의 Bbmaj7b5/A 코드에서의 E음은 b5로 즉 #11을 나타낸다. 다음으로 이어지는 G음까지 #11th-13th로 이어지는 텐션이 주선율을 구성한다. 또한 D Major Scale의 구성 음으로 주선율의 조성은 일치를 시키고 있다. 세 번째 단의 6도 음정을 이용한 패턴은 주선율로서의 기능보다는 선율 말미의 호흡으로 볼 수 있다.

[악보 2] Bright Size Life의 A부분 화성분석

2-2. Bright Size Life의 A부분 화성 분석

Bright Size Life의 A부분은 [악보 2]에서 보듯이 IVMaj7인 Gmaj7로 시작한다. 그러나 두 번째 마디의 Bbmaj7b5/A 코드가 D Minor Scale의 bVIMaj7 코드로서 Modal Interchange가 사용되었다. 또한 A부분의 화성 진행의 특징은 Inversion Chord와 Hybrid Chord를 사용함으로 Bass Line이 선율적인 진행을 한다. 그리고 소리의 울림도 Root Position과는 다른 질감을 나타낸다. [악보 1]의 각 단의 하단부에 표시한 Bass Line인 G - A - D - C - Bb - A가 바로 그것이다. 두 번째 단의 4마디의 D/C 코드는 Secondary Dominant 7th Chord의 기능 보다는 Bass Line의 움직임에 따라 사용된 코드라고 볼 수 있다. 세 번째 단의 2마디의 코드인 G/A도 G7sus4의 색채감과 Bass Line의 진행상 필요 두가를 목적으로 나타난 코드이다.

2-3. Bright Size Life의 B부분 선율 분석

Bass Line A - G - E - D - A

[악보 3] Bright Size Life의 B부분 화성분석

[악보 3]에서 보듯이 B의 주선율은 장7도 음정의 하행과 장13도 그리고 증11도의 진행으로 나타난다. 전통적인 Classic에서는 자주 나타나지 않는 기법으로 현대 음악과 Jazz중에서도 현대적인 Jazz에 나타난다. 40, 50년대 Jazz에서는 이와 같은 선율의 전개는 찾기 힘들다.

첫째 단의 선율은 장7도 하행과 장13도의 도약에 있어서 F/G 코드에서는 G Mixo-Lydian으로 마무리된다. 두 번째 단의 선율도 장7도 하행과 증 11도의 도약으로 움직이고 D 코드에서는 D Major Pentatonic Scale로 마무리된다.

#### 2-4. Bright Size Life의 B부분 화성 분석

Bright Size Life의 B부분은 [악보 3]에서 보듯이 크게 4개의 코드가 나오고 마지막 마디에서 A로의 연결이 나타난다. 첫째 마디의 G/A와 F/G는 동일한 코드 구조의 진행으로 F/G가 Secondary Dominant 7th Chord의 기능 보다는 Constant Structure의 진행으로 나타나고 있다.

B부분의 화성 진행은 특이하게 전통적인 Classic의 화성 진행도 함께 나타나고 있는데 V7-IV7-V7-I 진행으로 Classic의 V-IV-V 진행이 나타난다. 그러나 G/A-F/G 등의 7sus4의 Hybrid 형태가 나타남으로 Jazz적인 요소도 함께 갖고 있다.

### 3. 결론

본 논문에서 논자는 Pat Metheny의 Bright Size Life의 Song Form과 선율 화성을 분석하면서 다음과 같은 연구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첫 번째로 완전 5도와 장7도 그리고 장13도와 증11도 선율적인 도약과 각 Chord Scale 과 D Major Pentatonic Scale의 활용을 하였다. 그리고 전통적인 Song Form에을 사용 하였다.

두 번째로 D Major Scale을 중심으로 한 Tonality와 D Minor Scale의 코드를 활용한 Modal Interchange기법과 Constant Structure를 부분적으로 사용하였다. 그리고 Classic의 전통적인 화성진행인 V-IV-V도 활용 하였다.

Pat Metheny의 작품 Bright Size Life를 연구하면서 발견한 부분은 전통적인 음악적 기법을 토대로 현대적인 부분까지 수용하여 음악의 영역을 넓혔다는 점이다.

#### 참고문헌

- [1] Pat Metheny's Pat Metheny Song Book (Hal Leonard Corp 2000.6)
- [2] Pat Metheny's Pat Metheny Group (Hal Leonard Corp 2005.3)
- [3] Wolf Marshall's "The Jazz Theory Book" (SHER MUSIC CO. 1995)